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지금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이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야를 불러 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야에게 전쟁에서의 공로를 치하하는 의미로 왕의 상을 보내어 아내인 밧세바와 함께 지내도록 하였지만 다윗의 계획과는 달리 우리야는 밧세바에게 가지 않고 밖에서 지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여의치 않자 다윗은 우리야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있는 요압에게 우리야를 전쟁의 가장 앞으로 보내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야가 죽어도 좋다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야는 전쟁의 가장 앞에서 죽게 됩니다. 이 모든 일 후에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데리고 왔습니다.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삼하 11:27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1에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다윗의 이 악한 일을 책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9-10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범한 죄를 정확하게 짚으면서 책망하시는데 “네가 칼로 헷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 번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범죄 행위는 우리야에게 범한 죄여서 그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지만 다윗의 이 범죄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바로 회개하였습니다. 12:13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회개는 이렇게 짧은 한 문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51편의 말씀이 바로 다윗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출생할 때부터 악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래 착한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 실수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자신이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의 뱃속부터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윗의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창조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바로 심판을 받아 영혼이 멸망 당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 앞에서 쫓아 내시지 말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죄악 때문에 깊은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회개의 내용은 우리들이 찬양곡으로도 많이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와 자복하고 회개할 때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한 심령,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와 통회하며 회개한 사람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19절에는 "그 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 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반면 53:1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함이여 선을 행하는 자기 없도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나 지금 53편에서 말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나 우리 인생들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두 죄를 범하고야 마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분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와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한량없는 은혜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 속으로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시고 악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악을 행하고 범죄하는 것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고 결국에는 자신의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 죄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와 나의 모든 죄 짐을 풀어 놓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죄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이 복음을 거부하고 계속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통회하는 것은 바로 정결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정결한 마음과 상한 심령을 주시기를 구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여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